

건강 칼럼

다른 듯 닮은 유방암과 전립선암

어느 날 갑자기 의학적이 아닌 열토당도않은 이유로 유방암과 전립선암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유방은 여성에 있는 피부기관이고, 전립선은 남성에만 있는 생식기관이다. 여성과 남성을 상징하는 두 기관에서 발생하는 유방암과 전립선암은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서로 닮은 점이 많은 질환이다. 젖을 분비해 수유 기능을 하는 유방은 기름샘이 변형된 피부의 부속기관으로, 유선의 발달과 기능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에 의해 조절된다. 전립선은 밤불 모양과 크기의 남성 생식기관으로, 정자를 보호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물질을 생성해 정액의 30%를 구성한다. 전립선의 발달, 성장과 작용은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의 유방암은 유관과 유선 소엽에서 발생하는 상피세포암이고, 전립선암은 분비샘에서 발생하는 샘세포암이다. 유방암은 여성의 암 중 1위, 전립선암은 남성의 암 중 4위를 차지하는 흔한 암이고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령대별 발생률은 유방암은 40-50대에 주로 발생하고, 전립선암은



심봉석  
이화대 목동병원 비뇨기과 교수

60-70대에 많이 발생한다.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의 발생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여러 인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되고 생활 환경이 위험요인이다. 유방과 전립선의 발달과 기능에 관여하는 성호르몬이 암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생활습관, 특히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한 고칼로리식과 동물성 지방의 과다한 섭취, 빈번한 음주가 중요한 위험요인이고, 비만이 심할수록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증가한다. 불임시술, 성관계의 횟수, 직업 등이 암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유방암과 전립선암 모두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 전립선암은 초기증상뿐만 아니라 암과 관련된 특징적인 증상이 따로 없다. 유방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이 없는 멍울이 만져지는 것이므로, 유방을 스스로 만져서 확인하는 자

가검진이 중요한 조기 발견법이다. 전립선암도 직장직지검사에서 결절이 만져지기도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전립선암은 혈액 전립선특이항원(PSA)을 선별 검사 및 조기진단에 활용하며, 50세 이상 남자들은 매년 혈중 PSA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유방암에 대한 의미 있는 생체지표는 없다. 유방과 전립선은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장기이고 암세포의 발생과 성장에도 성호르몬이 관여한다. 항호르몬요법은 성호르몬의 생성이나 작용을 방해함으로써 암을 억제하는 치료방법이다. 유방암에서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억제하기 위하여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하는 타목시펜이나 에스트로겐의 합성에 필요한 효소인 아로마타제를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한다. 전립선암의 항호르몬치료는 약물을 이용해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

제하는 화학적 거세와 고환을 수술로 제거해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차단시키는 수술적 거세가 있다.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의 진단을 받으면 성적매력이나 성기능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치유된 이후 성생활을 기피할 필요는 없다. 사람받는 느낌과 만족스러운 성생활은 암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두 암은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있어, 예방을 위해서 부부가 함께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생활 개선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성이나 여성의 불임시술 여부나 성관계의 횟수는 암에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피임이나 성생활에는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가능하면 30세 이전에 첫 출산을 하고 모유수유를 충분히 하면 유방암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경우성 유방암의 위험도가 높을 경우,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예방적 유방절제술이 고려되지만, 가족력의 빈도가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효과가 확실치 않다. 남성에서 전립선암의 가족력이 있을 경우 40세 이후 매년 혈액 PSA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으면 된다.

사설

특례시와 금융도시 쌍끌이로 지역 발전을

지역발전이 항상 중심 주제가 되어왔다. 이 많은 전북도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다. 각 시군 지자체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도 주는 말이다. 요즘 같은 때는 특별히 전주시에 무척 실린 담부가 아닐 수 없다.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가 되도록 정부로부터 지정을 확실하게 받아내야 한다는 주문은 오래 전부터 해온 바이다. 최근에 전주의 특례시 지정이 최고의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성공하고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도 성공해 지역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지는 거다. 지역 발전은 전북도만 이끌어 가는 게 아니다. 전주시도 지역 발전을 이끄는 데 큰 몫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다른 시군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지역은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 너무 낙후돼 있다. 도지사를 비롯해 전주시장은 물론이고 전북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꼭 넓게 뛰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수가 없다.

전북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이 오래도록 도전을 받고 있는데 더 힘내야 한다. 전주의 특례시 지정이 난관인데 더 힘내야 한다.전북도와 전주시는 희망의 근거가 왜 아만 한다.일이 잘 안 풀리고 있는 지금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 특례시와 금융도시의 쌍끌이로 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어쩌면 지금이 지역 발전을 도모할 천재 일우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여기 다시 당부하거나 전북도와 전주시는 희망의 근거가 왜 아만 한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생두마자가 되어야 한다. 전북도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부산과 한판 승부를 벌일 각오를 다져야 한다. 전주시도 그렇다. 100만 이상의 도시만 특례시 자격을 준다면 정부의 국도 균형 발전 방침은 무위로 돌아간다. 전주시는 그것을 역설해야 한다. 경기도 지역은 100만이 넘는 특례시 후보 도시들이 수두룩한데 비해 우리 전북의 경우는 그게 아니다. 특례시 지정은 명칭 그대로 전주가 적격이 아닐 수 없다.

청년 일자리의 현실에 눈 떠야

전북도가 청년 일자리의 현실에 눈을 떠줘야겠다. 시군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다. 지역의 경제 실태 등이 늘 빨간불인데도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전국 최악이라는 성적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이 부끄러운 기록의 역사가 짧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북도가 이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 궁급하다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는 정말이지 청년고용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매년 반복해 지적하는 바이지만 호남통계청 전주시사무소가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난감할 뿐이다. 전북도는 출산수범하는 자세로 지역 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전북 지역의 청년 고용 열기가 아직도 미지근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감각이 둔한 탓이다. 청년 취업률이 미미한 데도 어떻게 물어 올려 보려는 움직임이 없으니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 최근에 일자리의 관련해 남들하기 어려운 보도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 당부하는데 진짜 팩트를 제대로 짚어줘야겠다. 지난주 수요일자 신문들을 보니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는 제목들이 1면 톱으로 올라왔었다. 이에 통속적으로 짐보따리를 싸고 있다는 제목도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익산시는 일자리 정책이 상당히 성공한 것처럼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일자리 부족을 말하며 다들 애써 달리는 부탁의 말을 토쳐럼 달고 있으니 뒷 여론이 개운치 않다. 그 발표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고개를 가우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겠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밑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이 관한 것이 아니다. 전북도는 청년 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는 청년 실업이 전북도와 각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 일자리 다룬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수도권으로 거처를 옮기고 있는 세월이 그 얼마나 계속돼야 하는가.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청년 고용의 낮은 성적표를 두고 이마를 짚어야겠다.

독자제언

균형과 견제를 위해 수사권 조정 필요

검경수사권 조정이 언론을 통해서 한창 뜨거운 이슈로 대두되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 없이 경찰과 검찰 간 권력 다툼으로 서로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주요 골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경찰이 일반적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특히, 핵심쟁점은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이 해당된다. 수사지휘권은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사로 표기되어 경찰의 수사에 대하여 검사가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고,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것을 명령할 수 있어 검찰이 모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또한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검사만이 영장청구의 주체로 표기되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어 검사가 경찰의 영장신청을 불청구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없다. 이처럼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의 권한을 이용해 수사에 개입할 여지도 충분하다. 위 2가지 점만 살펴봐도라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 없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부패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제대로 된 견제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국민 인권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이 전담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점은 상호통제와 감시견제 제도의 료운 사회를 구현을 위해서 수사구조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장원하 남원경찰서 수사과지휘권 경위

사위이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보겔백의 결승 홈런



대니얼 보겔백은 지난 12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카우포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MLB)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연장 10회초 결승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시애틀은 7-6으로 승리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